



지난 20일 경희의료원 암병동에서 교수의회 제2차 전체 임시대의회 시작 전 범대위 소속 구성원 단체 대표자들이 항의 시위를 벌이며 교수의회 대표자들과 대치하고 있다. 이날 총동문회 박용화 수석부회장은 “교수의회가 구성원 소통에 적극적으로 임할 필요가 있다”고 일갈했다.

## 대평의 규정안 논란 한 달째 ‘표류’

강석현 기자 nujabes99@khu.ac.kr

‘대학평의원회(대평의) 총장선출규정(선출규정) 논란’이 한 달째 이어지고 있다. 법인 이사회가 제시한 구성원 의견 수렴 기간인 5월 20일을 훌쩍 넘긴 상황 속에서 교수의회와 총장선출 범경희대책위원회(범대위)는 서로 대립되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각각 법인 압박 카드를 꺼냈다. 이에 ‘법인 대 구성원’, ‘교수의회 대 범대위’로 격화된 대립이 한동안 지속될 전망이다.

범대위는 이사장 면담을 요청하며 응하지 않을 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로 전환할 것이라고 법인을 압박했다. 범대위는 지난 22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평의 선출규정 논란’과 관련한 토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총장 선출은 오직 범대위에서만 논의되어야 하며, 지난 3월 법인이 제시한 총장후보추천 규정(추천규정) 초안은 폐기한다”는 것에 합의했다. 아울러 범대위는 지난 23일 법인에 ‘이사장 면담 요청서’를 전달하고 만약 이사장이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비대위 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요청서에는 교수의회를 제외한 구성원 단체의 서명이 기재됐다.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김수혁(자율전공학 2016) 회장은 “범대위 구성원들은 총장 선출을 진행하기 위해서 법인에 소통을 요구하고 있지만 교수의회가 전혀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다”라며 “많은 학생들이 다른 구성원들과 소통에 임하려 하지 않는 교수의회 측 태도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수의회는 법인에 대평의 선출규정 채택을 종용했다. 교수의회는 지난 20일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22일 열린 제5차 대평의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 채택한 선출규정을 지난 3일 법인 이사회가 수용하지 않은 것에 분노한다”며 “법인이 2019학년도 1학기 중에 총장 선거 절차에 착수할 것을 요구하며, 만약 법인에 의해 구성원들과의 약속이 파기될 경우 그 주된 책임은 이사장에게 있음을 분명히 선언한다”고 밝히며 법인을 압박했다.

교수의회 강재식 의장은 “지난 3일 열린 법인 이사회가 대평의 선출규정을 반려하고 그 책임을 구성원 단체들에게 돌리면서, 교수의

회에서 그동안 일관되게 요구한 이번 학기 중 총장 선거 실시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했다”며 “법인이 지금의 방관적 태도를 바꾸면 문제는 오히려 쉽게 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수의회는 자체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대평의 선출규정의 투표반영 비율을 고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조사 대상 교수 1,321명 중 701명이 응답했으며 이 중 64.9%가량이 ‘대학평의원회에서 논의하고 확정된 교수 투표반영 비율(75%)을 고수해야 한다’고 답했다.

‘대평의 선출규정 논란’이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지난 20일 교수의회가 주관한 제2차 전체 임시대의회가 시작되기 전 총동문회, 경희대학교 노동조합, 민주노총 경희의료원지부, 경희학원 통합노동조합(경희학원노조), 서울캠퍼스 총학생회 등이 모여 항의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은 언쟁이 다소 격렬해지는 등 험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이날 경희학원노조 장백기 위원장은 “범대위에 왜 참여하지 않느냐. 구성원 간 논의를 하자는 것

이나 말자는 것이냐”고 항의했으며, 총동문회 박용화 수석부회장은 “소통에 문제가 생기면 비공식적으로라도 만나서 입장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수의회 강재식 의장은 “지난달 19일 대평의에 참여하지 않는 일부 구성원 단체를 정중히 초청하여 간담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나, 해당 구성원 단체 대표자들은 ‘총장 선출제 논의 주체는 대평의가 아닌 범대위가 맡아야 한다’며 당일 간담회를 돌연 취소한 바 있다”며 “돌발적 시위를 통해 교수의회에 압박을 가하면서 한편으로 대화를 요구하는 방식은 지극히 모순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속되는 논란 속에서 대학본부는 빠른 시일 내 구성원 간담회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장실 김동준 과장은 “교수의회와 범대위에서 각각의 의견서를 법인과 대학본부에 보내왔지만 구성원 합의안은 전달받지 못했다”며 “우선 소규모라도 참석할 수 있는 구성원 단체 대표자들과 일정을 조율해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Newsmaker

성은경(무용학 석사 3기)-좌  
김보금(무용학 2018)-우



## 무대에서 가장 빛나는 무용가 한국무용을 세계로

문화평 기자 moonbym@khu.ac.kr

지난 4월 6일 한국무용협회가 주최한 ‘제56회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에서 우리학교 두 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받았다. 성은경(무용학 석사 3기) 씨가 ‘한국전통명작무’ 여자 부문에서 금상을, 김보금(무용학 2018) 씨가 ‘한국창작무용’ 여자 부문에서 동상을 각각 수상했다.

1963년 시작된 전국신인무용경연대회는 국내 최고의 무용경연대회로, 전국의 각 학교에서 우수한 학생들만 참가하는 대회인 만큼 신인 무용가들의 등용문으로 여겨진다. 특히 성 씨는 올해 대회에서 신설된 한국전통명작무 부문에서 첫 금상으로 이름을 남겼다.

무형문화재 전수자인 성 씨는 ‘김백봉부채춤’을 선보였다. 김백봉부채춤은 지난 2014년 이복5도 무형문화제 제3호로 지정된 작품으로, 평안남도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낸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춤이다. 성 씨는 “처음 생긴 부문에서 수상하게 된 금상이라 더 의미가 깊다”며 “신무용의 꽃으로 여겨지는 김백봉부채춤 보유자인 안병주 교수님께 사사받고 수상까지 하게 돼 영광”이라고 말했다.

한국창작무용 여자부문에서 동상을 받은 김 씨는 1930년대 전설적인 무희 최승희가 유행시킨 ‘舞姬: 춤을 품은 정원에서’로 이번 대회에서 쾌거를 거뒀다. 아직 학부 2학년, 스스로도 예선에서 떨어지리라는 예상을 뒤엎고 본선 수상을 이룬 것이다.

국내 3대 무용대회로 손꼽히는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이들이지만 오히려 남들보다 늦은 열등생으로 여겨졌다. 성 씨는 중학교 3학년, 김 씨는 고등학교 1학년이 돼서야 무용을 시작했다. 국립국악고에 재학했던 성 씨는 또래 친구들에 비해 실기 실력이 뒤쳐져 마음고생

이 심했다. 성 씨는 “당시엔 무척 힘들었지만 오히려 지금까지 꾸준히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라고 생각한다”며 “일찍 시작한 친구들이 그만큼 부상을 많이 겪고, 지금쯤 지치는 데에 비해 저는 짧은 연차 덕에 이제 무용이 재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씨 역시 비슷한 경험을 겪었다. 시작이 늦은 만큼 연습에 심혈을 기울였다. 무리한 연습으로 입시를 앞두고 발목 인대가 찢어졌다. 그럼에도 연습을 멈추지 않았던 김 씨는 인대 3개 중 2개가 끊어진 상태다. 이번 대회를 앞두고도 발목의 고통은 여전했지만 치료를 병행하며 대회를 준비했다. 김 씨는 “발목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아 속상했지만 안구호 교수님과 준비한 대회에서 좋은 결과를 얻게 돼 기쁘다”라고 말했다.

### 후학 양성하며 한국 무용 알릴 것

큰 대회에서 성과를 거뒀지만 두 사람은 보다 큰 계획을 품고 있었다. “20대 초중반 무용수에게 대회는 꿈이나 다름없다”는 성 씨는 “기회가 주어지면 기꺼이 대회에 참여하겠지만 창작 경연을 준비하는 방향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학문적 열의를 잃지 않으며 후학 양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성 씨는 “무용가로서 춤을 출 때 가장 빛나는 존재가 돼 누군가를 가르칠 때에도 후대의 무용가들에게도 표본이 되도록 애쓰겠다”며 미래의 자신을 그렸다.

김 씨는 한국 무용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회에 속상해 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한국무용에 대해 잘 알고, 자부심을 느꼈으면 좋겠다”는 김 씨는 “앞으로 한국무용을 알리는 데 힘쓰고 싶다”고 전했다.

## 배리어프리존, 장애학생도 안전하게 축제 즐긴다

한진석 기자 1\_jinseok@khu.ac.kr

【서울】서울캠퍼스(서울캠) 총학생회(총학)가 장애 학생의 원활한 축제 관람을 돕기 위해 ‘배리어프리(Barrier-free) 존’을 마련했다. 지난해에도 배리어프리 존이 설치됐지만 올해는 위치와 이용 대상을 보완했다.

배리어프리 존은 장애 학생이 안전하게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관중석과 별도로 설치한 ‘장애 학생 전용 좌석’이다. 총학은 배리어프리 존 설치를 위해 장애 학생지원센터로부터 장애유형과 수료 등 정보를 받고, 장

에 학생에게 사전 신청을 받았다.

장애 학생은 휠체어석과 일반좌석을 선택할 수 있었고 동반 1인을 위한 좌석도 함께 제공됐다. 장애 유형에 따른 구분은 없었으며, 사전에 조사된 입장 시간 및 인원에 맞춰 좌석이 조정됐다. 배리어프리 존 운영 전반을 담당한 총학 박하영(정치외교학 2017) 전락실장은 “모든 학우가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기 위해 당연히 만들어야 하는 공간이라고 생각했다”며 배리어프리 존 설치 계기를 밝혔다.

직접 확인한 결과 장애 학생이 자리에 앉았을 때 시야를 제한하는

환경은 없었다. 좌석 뒤쪽에는 안전을 위해 펜스가 설치됐다. 배리어프리 존을 이용한 한채정(행정학 2019) 씨는 “청각장애인 특성상 일반 관중석에 있을 땐 공연 내용이 거의 들리지 않았는데 배리어프리 존은 비교적 무대와 가까워 소리를 크게 듣거나 입 모양을 읽는 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고쳐야 할 점은 있었다. 배리어프리 존이 안내도에 표기되지 않았고 일부 자원봉사자들이 행사 중 시야를 가려 관람에 어려움을 겪은 장애 학생도 있었다. 송채원(행정학 2016) 씨는 “배리어프리 존의 설

치는 환영하지만 지체장애 학생의 눈높이에서는 행사 관람이 제한되는 등 당사자의 관점에서 다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원봉사자 역시 관련 사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해 장애 학생들의 안내에 어려움을 겪는 모습을 보였다.

총학 박 전락실장은 “사전에 조사한 시간에 맞춰 입장 준비를 했으나 실제 입장 시간과 차이가 생겨 대응에 제한이 있었다”면서 “이번 축제 경험을 토대로 차후 배리어프리 존 운영에 다양한 개선이 이뤄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 지면안내

#### 총장 선출제 구성원 의견 >> 4-5면



왼쪽부터 박영국 총장직무대행, 총동문회 권오형 회장, 경희학원 통합노동조합 장백기 위원장, 민주총동문회 김재운 회장

### 창간기념기획

뉴스레터, 독자적인 정보제공 채널로

발돋움 목표 >> 7면